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0호 [루계 제26094호] 주제107(2018)년 8월 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봉해동지, 황병서동지, 조원동지, 오일정동지, 김용수동지, 김창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인민무력성 제1부상 북군대장 서홍찬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시며 식탁에 구미에 맞는 식찬 한가지라도 더 놓아 주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공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인민군대에 통채로 맡겨주시었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젓갈문화가 특별히 발달되어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보니 가슴이 젓어든다고, 수령님께서 전원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고하시며 젓갈품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고, 그때 수령님께서 건병이젓갈은 젓갈품만 잘 만들어 팔아도 인민들

이 사업을 특별히 관심 하시면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어 젓갈품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해당 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젓갈품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입함으로써 지난해와 올해 건병이와 까나리, 멸치, 조개젓을 비롯하여 염도와 매운맛이 다른 30여가지의 젓갈시제품들을 완성하고 7가지의 젓갈품 수백t을

현지도이후 집행한 과업들과 생산하였으며 종업원살림집을 비롯하여 일부 건물들의 마감공사와 비품설비를 끝내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는 젓갈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밤도적》으로 부르면서 즐겨먹어온 맛 좋고 영양 가 높은 부식물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세 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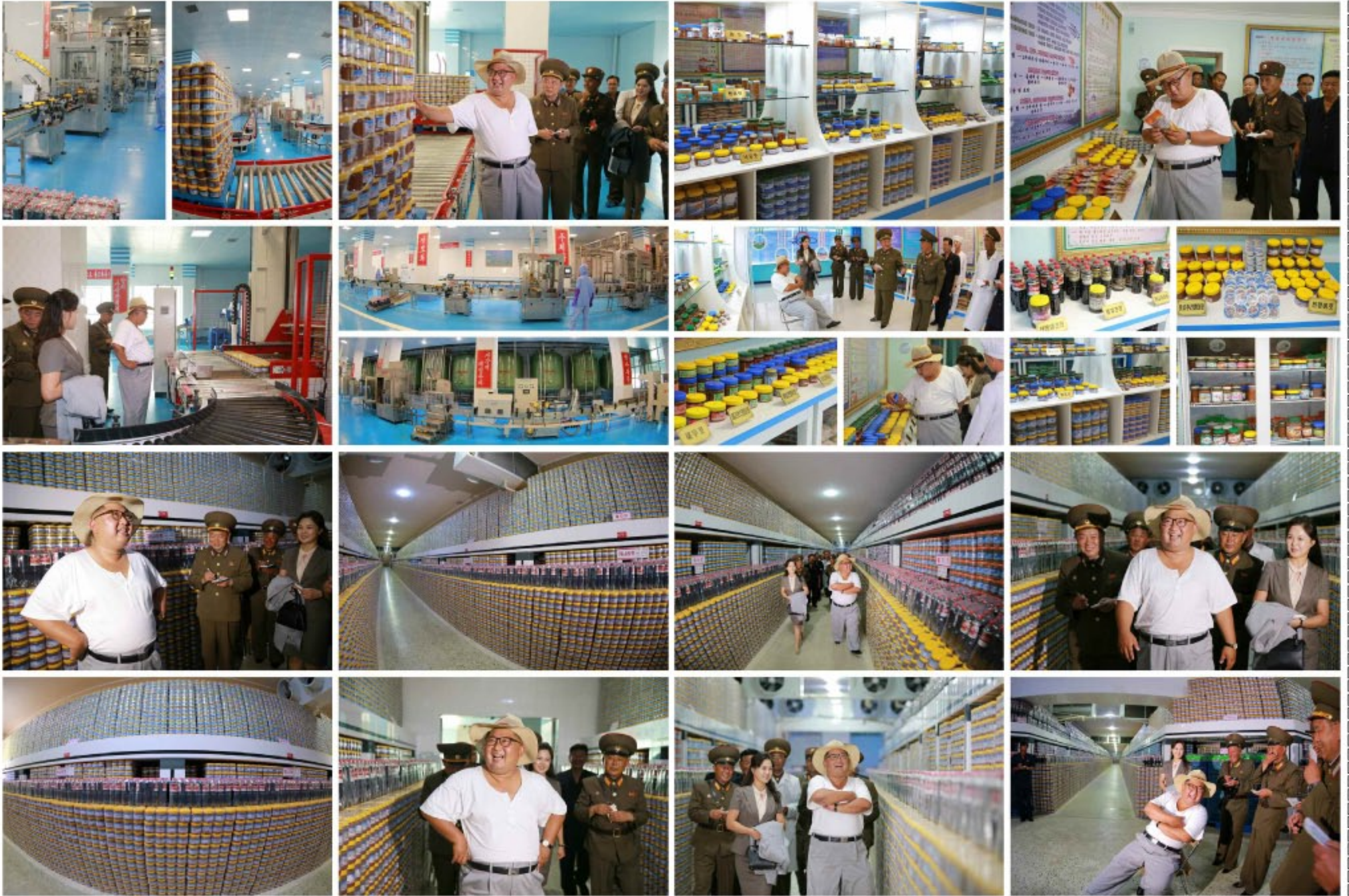
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는데 우리는 30여년전 수령님의 교시를 오늘날에 와서 집행하게 되였다고,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에서 이 공장을 중시하는 의도를 깊이 새기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젓갈품들을 더 많이 연구생산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우리 나라 젓갈가공공업을 개척해나가는 공장,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공장인 것만큼 련판단위들과 적극 협동하여 젓갈품의 맛을 돋우고 가치수를 늘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공장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선진기술을 적극 탐구 도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식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속 강조하는것이지만 식료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특히 젓갈은 다른 식품들과 달리 균들이 쉽게 서식

할수 있는것만큼 이 사업에 대한 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이 생산로동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생산구역, 생산공정의 내외부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원원이 없도록 하며 원료 및 식료품첨가제, 포장재료의 보관관리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분석설비들도 공장규모와 능력에 상응한 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갖추고 검사의 신속성, 정확성,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공정검사, 제품검사들 원칙적으로 엄격히 하여 공장제품의 품질을 인민들앞에 철저히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전시실에 전시된 시제품들을 보시면서 가치수가 정말 많다고, 한가지 들고기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할수 있는것은 다 해놓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군침이 났게 포장도 잘하고 형식도 다양하다고, 젓갈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해수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러가지 어종들로 젓갈품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수도시민들과 서해안지역 인민들에게 판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제품들을 생산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수요대로 생산하여 팔아주며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제품의 질적발전을 위한 착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저장고를 찾으시고 저장고안에 마치 한쪽의 그림처럼 차곡차곡 꽂 채워져있는 젓갈가공품들을 훑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볼만 한 멋있는 풍경이라고, 처음 건설하는 젓갈

가공공장이여서 생산성이 담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겼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자넌진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서해포구의 보물고나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래도록 저장고를 거니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극복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스런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고 어머니 당에 큰 힘을 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정신을 지니고 젓갈품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젓갈가공품들이 팡팡 쏟아지도록 함으로써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책들이 현실에서 은이 나게 하고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길 또 오시어 결을 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이 인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당도록 더욱 분발하여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국종적운동으로 벌리자

## 산림조성 못지 않게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

###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고 경제보호 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라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농업운동에 한사발같이 면치않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푸른 숲을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의 배일을 앞당겨주어야 할 과업이 나사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을 관철화시킨 산림보수사업이 산림조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면밀한 계획전에 근거있게 밀고나가야 하는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산림복구전투는 위한 수평면과 수직면의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이며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민들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자연력의 정령인 산림복구전투

에서 산림피해를 경제적으로 막는것은 산림조성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본다.

총국장 김명철: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산에 나무가 얼마 없으면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큰물과 산사태가 나고 가을철에는 강하천이 말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산림보수사업은 곧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며 경제보호사업으로 되는것이다.

지방, 전군, 전민이 땀과 땀을 흘려서 산림을 보살피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것이 중요하다.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감시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산불막이선구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야 한다. 특별보호림들과 종전선구간을 비롯하여 위험개소의 산불막이선구간들에 돌이나 삼나무와 같은 나무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산불피해를 철저히 막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8월은 병해충이 다시 발생 할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리까지 화학농약과 함께 생물농약을 적극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기자:산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중요하게 나사는가.

부국장 최봉환:산림피해의 원인은 산불과 병해충발생, 람도벌, 큰물과 의한 산사태 등이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9월부터 가을기간은 산불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기로 볼수 있다.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산림피해가 진해되면서 위험기에 들어가기 전에 돌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날수 있는 경향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산불을 미리 막고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제때에 진압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감시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산불막이선구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야 한다. 특별보호림들과 종전선구간을 비롯하여 위험개소의 산불막이선구간들에 돌이나 삼나무와 같은 나무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산불피해를 철저히 막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8월은 병해충이 다시 발생 할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리까지 화학농약과 함께 생물농약을 적극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기자: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어야 할까요?

부총국장 홍정범:산불감독사 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된다. 무질서한 도벌과 개간, 분봉이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해도 밑을 볼수 없게 된다. 도, 시, 군에서 사, 당, 행정, 사법집행일군들이 여기에 응당할 책임을 돌리고 산림, 농업, 주민지구별로 당 기관을 겸하며 정태우가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주민정지사업과 감독목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감독원들이 그 어느때라도 철학을 높여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막이 선다.

기자:양보장전에서 어떤 나무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부총장 최봉환:그렇다. 지금의 양보장전으로 볼 때 정성들이 서를 뿌리고 가꾸어온 양보장들의 어린 나무도들이 가을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것 역시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양보장들에서 가을피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귀중한 나무도들을 잃어버리게 되며 나아가서 전민적인 산림복구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각양보장을 비롯한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도세배장들에 해가림막을 잘 설치하고 과학적인 관수대책을 세워 양보장들을 튼튼히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총국장 김명철:산불피해를 경제적으로 막는것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위한다.

산불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군대와 인민이 산림조성과 산림보수사업에 자각적일성과 창조적의욕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총동원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양보장들을 잘 관리하고 양보장들을 튼튼히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감독원들이 그 어느때라도 철학을 높여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막이 선다.

기자:양보장전에서 어떤 나무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부총장 최봉환:그렇다. 지금의 양보장전으로 볼 때 정성들이 서를 뿌리고 가꾸어온 양보장들의 어린 나무도들이 가을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것 역시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양보장들에서 가을피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귀중한 나무도들을 잃어버리게 되며 나아가서 전민적인 산림복구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각양보장을 비롯한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도세배장들에 해가림막을 잘 설치하고 과학적인 관수대책을 세워 양보장들을 튼튼히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총국장 김명철:산불피해를 경제적으로 막는것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을위한다.

산불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군대와 인민이 산림조성과 산림보수사업에 자각적일성과 창조적의욕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총동원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양보장들을 잘 관리하고 양보장들을 튼튼히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감독원들이 그 어느때라도 철학을 높여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막이 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야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만경대구역일군들과 근로자들에 산림보수관리를 잘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곳서 증시한것이 보아 관리를 구역적인 사업,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게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구역일군들은 벌려놓은 일이 아무도 없어도 산림보수사업은 반드시 중단할수 없는 현실중심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이 땀흘려나서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지도 밑에 일군들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산림보수사업에서 애국적인 신심을 발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벌려나갔다. 이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산림보수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로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양보장들을 잘 관리하고 양보장들을 튼튼히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감독원들이 그 어느때라도 철학을 높여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막이 선다.

만경대구역에서 높이기를 사업으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또한 산림보수관리를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대책에 반영하고 하나하나 실속있게 집행해나갔다.

이들은 올해 해당 단위들에서 심은 나무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담당자를 실시하고 장악통제와 총화사업을 세세하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보수사업에 주안점을 참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온과 가을철상이 지속되는데 맞게 산에 자주 올라가 심은 나무들에 대한 물주기와 김매기정리를 정상적으로 엄격히 하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을 엄격히 집행해나갔다.

일군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총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지에 올라가 자기들이 심고 관리한 나무에서 팽성으로 총화하는게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산림조성과 보수사업을 자기 자신의 임무처럼 여기고 스스로 벌려나간다고 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하건서도 마음은 언제나 산에 두고 자기 심은 나무를 보살피는 과정은 곧 숲이 무성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도판을 만들어놓은 산지에서도 일군들의 열정을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도 펴고있었다. 이들은 구역안의 산림조성과 관리실적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감시초소를 두며 지키는것과 함께 모두가 일군들을 철저히 지키게 하였다. 또한 모든 산림감독원, 산불감시원들이 자기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불시기술을 갖추어주어 산불감시정형을 제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기자: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어야 할까요?

부총장 최봉환:산불피해의 원인은 산불과 병해충발생, 람도벌, 큰물과 의한 산사태 등이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9월부터 가을기간은 산불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기로 볼수 있다.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산림피해가 진해되면서 위험기에 들어가기 전에 돌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날수 있는 경향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산불을 미리 막고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제때에 진압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감시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산불막이선구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야 한다. 특별보호림들과 종전선구간을 비롯하여 위험개소의 산불막이선구간들에 돌이나 삼나무와 같은 나무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산불피해를 철저히 막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8월은 병해충이 다시 발생 할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리까지 화학농약과 함께 생물농약을 적극 리용하여 병해충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 병해충구제에 생물농약을 리용

### 사리원시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생물농약과 화학농약을 리용하기나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리론은 동물들을 보호중심시키려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병해충을 이완시킬수 있다.》

사리원시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산불보수이자 산림조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호농농은 생물농약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병해충구제에 널리 리용하고있다.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고 산림을 보호하려면 농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현 조건에서 볼 때 화학농약은 그 량이 제한되어있고 그것을 마련하자면 애로되는것이 적지 않다.

화학농약이 부족한 조건에 빌치하면서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산림피해를 경제적으로 막는데 대한 당의 의도를 관철 할수 없게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농약을 확보하여 산림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화학농약을 대신할수 있는 생물농약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병해충구제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면 어떤 생물농약을 만들 것인가.

일군들은 해당 부문을 편제하여 병해충구제효과가 큰 감자순

작충액을 리용한 생물농약을 만들기로 하였다. 지난 시기 농업부문에서도 병해충구제에 감자순작충액을 리용하여 효과를 보았었다. 그리하여 생물농약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이 생물농약은 감자순작충액을 리용한것으로 감자순작충액과 병해충구제효과도 높으며 두가지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줄일수 있게 때문에 매우 실리적이였다. 또한 감자순을 주원료로 만들기때문에 원료조달에 구애될 일이 마음먹고대로 생산비용도 없었다. 그리고 특별한 장비가 없이도 손쉽게 만들수 있어 유용하다.

생물농약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제철한 감자순을 즙을 내어 감자순작충액을 만든다. 여기에 화학농약과 배유 등을 조금 섞고 물에 희석시키면 생물농약이 얻어진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이 생물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는 과정에 그 우월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화학농약을 쓰면 대체로 처음에는 병해충이 죽지만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약해지고 지속시간도 짧아졌다. 원인은 병해충이 화학농약에 죽는다는 힘 즉 면역이 생겼기때문이다.

그러나 생물농약은 아무리 반복하여 써도 살충효과가 약해지

지 않았으며 지속시간도 매우 길었다.

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더 많은 생물농약을 생산하였다. 시에서는 이들이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 생물농약을 여러차례 나무에 뿌려주어 종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는 데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현실은 주어진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어 실천해나갈 때 모든 일에서 성과를 거두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김성진

## 정일봉상 전국청소년래권도선수권대회 개막

정일봉상 전국청소년래권도선수권대회가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7일 태권도경기장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계부서 일군들, 선수들과 감독들, 시인의 청소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조선래권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체육목표인 태권도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정려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고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 밑에 청소년래권도선수들이 사상적, 투지적, 속도적, 기술적 경기력적과 방법을 훈련과 경기들에 적극 구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정통무도인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선수권대회 개막을 선언

하였다.

이어 선수권대회상징기합이 제기되었다.

조선래권도위원회의 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조선래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태권도선수단,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학원과 각 도(직할시) 태권도선수단 청소년래권도학교, 태권도학원에서 선발된 우수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태권도와 바둑동맹경기들이 진행되게 된다.



##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개막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제11주년)가 개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배구, 탁구 등의 경기들이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7일 정춘거리 동구경기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제1상 김광철동지, 관계부서, 직영일군들,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들, 시단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직업운동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경기대회가 공화국장정 일흔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전민

적인 총동원운동에 과감히 면치 않는 제1선부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단련력, 정서적 힘찬 체육기술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선수들이 경기대회를 통하여 나라에 체육열기를 더해줌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농업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용고무수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남지배구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제11주년)는 평양시의 여러 장소에서 14일까지 진행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테헤란 도착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이란의무성 동아시아 및 오세안주담담총장과의 나사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

전대표사가 맞이하였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화국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싱가포르의무성 동아시아 및 오세안주담담총장과의 나사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

대사가 전송하였다.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방글라데슈대통령 작별방문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일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을 작별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엠.디.아브라함(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리정현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 평양교원대학 참관

리장흥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7일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어 대학이 교육자양성의 원동장으로 훌륭히 진전됨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연혁을 소개, 교육과발전사관, 소학교교수방법실기 등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또한 청년운동사적관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휴원신발공장 등을 참관하였다.

부담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께서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표단은 조선반도에서 최근 공적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크게 걱정한다고 하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한 조선이 통일전쟁을 막기 위한 막대한 노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